

현대차 전동화 기술 통했다... 아이오닉 9,獨 평가서 우위

볼보 EX90 제치고 경쟁력 인정 받아
넓은 공간·뛰어난 활용성 높은 평가

현대자동차의 플래그십 전동화 스포츠 유틸리티차(SUV) '아이오닉 9'이 독일 유력 자동차 전문지의 비교 평가에서 볼보 EX90을 제치며 글로벌 시장에서 상품성과 품질 경쟁력을 입증했다.

현대차는 독일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모토 운트 슈포르트'가 실시한 전동화 럭셔리 SUV 비교 평가에서 아이오닉 9이 총점 572점을 획득해 볼보 EX90 Twin Motor AWD(555점)를 17점 차로 앞섰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차체, 안전성, 편의성, 파워트레인, 주행성능, 친환경성, 경제성 등 7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아이오닉 9은 특히 차체와 파워트레인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현대차 2027 아이오닉 9 외장.

매체는 아이오닉 9에 대해 '6명이 탑승해도 여유로운 다목적 럭셔리 SUV'라고 평가하며 넓은 실내 공간과 뛰어난 공간 활용성을 강점으로 꼽았다. 전자식으로 접히는 3열 시트와 최대 2494리터의 적재 공간, 2열 전동식 레그레스트 등은 실용성과 편의성을 높인 요소로 평가됐다.

직관적인 물리 버튼과 스위치, 빠르고 논리적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애플 키플레이, 스티어링 휠 패들을 활용한 회생제동 조절 기능도 호평을 받았다. 또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5.0초 만에 도달하는 성능과 부드러운 가속감으로 주행 성능과 승차

감을 모두 만족시켰다는 평가를 얻었다.

이 외에도 UV-C 살균 수납함,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 보스 사운드 시스템, 충전 경로 안내 등 첨단 편의·커넥티비티 기능도 경쟁력을 높인 요소로 꼽혔다.

현대차 관계자는 "아이오닉 9이 독일 권위의 자동차 전문지 비교 평가에서 기술력과 상품성을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최고 수준의 전동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 아이오닉 9은 올해 상반기 국내에서 7329대가 인도되며 전년 동기 대비(3608) 두 배 이상의 판매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넓은 실내 공간과 안정적인 주행감 등을 앞세워 글로벌 대형 전기 SUV 시장에서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CJ문화재단, 음악 유학생 5명 선발

CJ문화재단이 올해 해외 음악 유학생 5명을 선발하고 장학금을 지원한다. 학비와 생활비는 물론 공연장과 녹음 스튜디오 이용 등 창작 활동도 함께 지원해 대중음악 분야 인재 육성에 나선다. '2026 CJ음악장학사업 장학금 수여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예성, 이민영, 유정현, 강성진. /CJ문화재단



롯데웰푸드, 1형당뇨병 환우 돕기

롯데웰푸드가 무선탄·무당류 디저트 브랜드 '제로(ZERO)'를 통해 한국1형당뇨병환우회·한국체장장애인협회와 함께 1형당뇨병 환우와 가족을 위한 지원 활동을 이어간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12월 환우회와 체결한 업무협약(MOU)의 후속 사업이다. 롯데웰푸드는 '2026년 1형당뇨 가족캠프'와 '희망가방 프로젝트 3기'에 제로 브랜드 제품을 후원했다. /롯데웰푸드



하나금융, 취약계층 여름나기 물품 지원

하나금융그룹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혹서기 행복상자' 1300여 박스를 전국에 전달한다고 4일 밝혔다. 하나금융그룹 직원이 인천시 제물포구 소재 인천적당촌상당소를 방문해 행복상자를 전달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



대한항공, 와인 평가서 5개 부문 수상

대한항공이 글로벌 항공 서비스 평가에서 기내 와인 경쟁력을 인정받으며 프리미엄 서비스 품질을 높여가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 1일(현지 시간) 미국 프리미엄 비즈니스 여행 전문 매거진 '글로벌 트래블러'가 주최한 '와인즈 온 더 링 2026'에서 총 5개 부문(1위 1개, 2위 2개, 3위 2개)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대한항공 보잉777-300ER 항공기. /대한항공

스마일게이트 퓨처랩 디지털 메이커 교육 운영

스마일게이트 퓨처랩은 성남교육지원청과 함께 지역 청소년의 창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디지털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업의 창의 교육 인프라와 교육청의 지역 교육자원을 결합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디지털 창의교육과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퓨처랩은 디지털 창의교육 프로젝트 '퓨처비 챌린지'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성남교육지원청은 지역사회 전문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학습 경험을 지원한다. /최빛나 기자 vitna@

한국타이어, WRC 무대에서 기술력 과시

'다이나프로 R213' 성능 입증

한국타이어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랠리로 꼽히는 WRC 핀란드 랠리에서 극한의 환경 속 타이어 성능을 입증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국제자동차연맹(FIA) 주관 세계 최정상급 모터스포츠 대회 '2026 월드 랠리 챔피언십(WRC)'의 10라운드 경기 '핀란드 랠리(Secto Rally Finland)'가 지난 8월 2일(현지 시간) 핀란드 '이위베스퀼레'에서 막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핀란드 랠리는 316.04km에 이르는 20개 스페셜 스테이지로 진행됐다. WRC 일정 중 가장 빠른 대회로 시야확보가 어려운 블라인드 크레스트와 좁은 산림 코스에 첫날 폭우까지 겹쳐 진흙탕·물웅덩이가 형성되는 악조건이 이어졌다.

한국타이어는 이번 대회에 엑스트림 전천후 랠리용 타이어 '다이나프로 R213'을 공급했다. 다이나프로 R213은 급격히 저하된 노면 그립 속에서도 점프 착지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물이 고



1위한 마르코 살미넨-사미 파야리(토요타).

/한국타이어

인 흙길과 산림 코스에서 강력한 접지력·조향 성능·내구성을 발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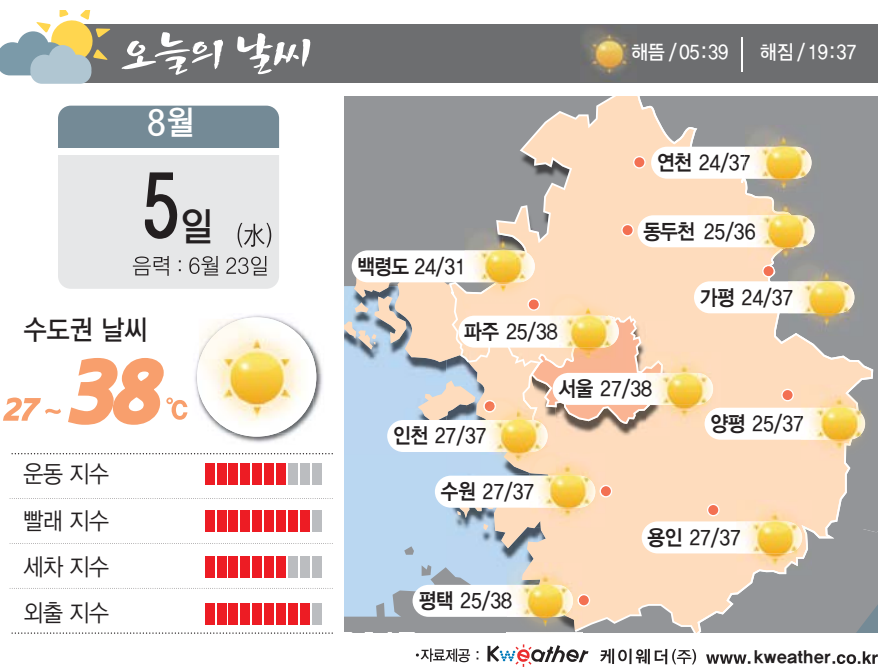
접전 끝에 '토요타 가주 레이싱 월드 랠리 팀' 소속 사미 파야리(핀란드)가 우승을 차지했다. 직전 에스토니아 랠리에 이어 2개 대회 연속 우승이다. 종합 2위로 올라선 파야리는 단독 선두 엘핀 에반스(201점)를 30점 차로 추격하고 있다.

2026 WRC 시즌은 4개 대회를 남겨두고 있다. 다음 11라운드는 8월 27~30일 파라과이 안카리나시온 일대에서 열리는 '파라과이 랠리'다. /이승혁 수습기자 sh95@

인사 ◆새만금개발청 ◇과장급 △개발전략국 투자유치과장(서기관) 김인 ◆한국연구재단 ◇단장 선임 △국가전략연구본부 정보·융합기술단장 이득희 ◆조달청 ◇과장급 전보 △대변인 부이사관 안경훈 △운영지원과장 박철웅 △조달데이터관리팀장 서기관 최기영 △조달가격조사과장 과학기술서기관 송

지혁 ◆한국국제교류재단(KF) ◇1급 승진 △아세안문화원장 최재진 ◇실장급 △청렴감사실장 최현수 △기획조실장 이광철 △글로벌사업2실장 이방복

부음 ▲이수만(전 울산시의회의 부의장)씨 별세=4일, 울산시 영락원장례식장 203호, 발인 7일. 052-272-1111



벤처기업協 “기업가정신 되새겨야”

故 이민화 명예회장 타계 7주기
추모주간 지정, 온라인 추모관 운영

벤처기업협회가 이민화 명예회장(사진) 타계 7주기를 맞아 '기업가 정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벤처협회는 4일 "최근 자본시장 제도 개편 등으로 벤처생태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는 가운데 생태계의 지속적인 성장과 제도악을 위해선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벤처기업인의 도전과 혁신을 이끄는 기업가정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혁신기술로 과감하게 도전하고 불가능해 보였던 일도 가능성으로 바꿔왔던 벤처 1세대의 도전정신을 오늘날의 벤처생태계가 다시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취지에서 협회는 지난 3일부터 일주일간을 이명예회장 추모주간으로 지정하고 온라인 추모관을 운영

한다. 온라인 추모관은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온라인 추모 메시지를 남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민화 명예회장은 벤처기업특별법 제정과 벤처기업 육성 정책, 코스닥 활성화 등 대한민국 벤처생태계의 초석을 다지는 데 크게 기여한 대표적인 벤처 1세대 기업인이자 벤처협회 초대 회장으로서 벤처기업의 권익 증진과 기업가정신 확산을 위해 헌신했다. /김승호 기자 bada@

동아오츠카, 부산에 수분음료 1만개 전달

적십자사와 폭염 취약계층 지원

동아오츠카는 부산 지역 폭염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와 함께 취약계층 지원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기상청은 지난달 30일 오전 11시를 기해 부산 중부·서부지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폭염중대경보는 2008년 폭염특보 제도 도입 이후 신설된 최상위 경보 단계다.

부산은 이날 최고기온 38.8도를 기록하며 근대 기상관측이 시작된 1904년 이후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동아오츠카는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와 함께 노인·아동 복지시설 등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포카리스웨트 분말 1만개와 캔 제품 1500개를 지원했다.

박철호 동아오츠카 대표이사 사장은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장 대응 인력과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가 중요하다"며 "지역사회와 협력해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동아오츠카는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농촌진흥청 등과 협력해 취약현장을 중심으로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타이어뱅크, 소방히어로 52호 선정

국민 안전 지킨 정연우 소방교

타이어뱅크는 전국소방안전 공무원 노동조합과 함께 선정하는 소방히어로 52호 주인공으로 부산 중부소방서 정연우 소방교(사진)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정 소방교는 2019년 입관 이후 각종 재난 현장 최일선에서 구조·구급 활동을 수행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소방설비산업기와와



산업안전기사 등 직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며 전문성을 높였고, 소방차 길터주기과 소화전 주변 불법주차근절 캠페인 등 예방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 지역사회 안전문화 확산에 힘써왔다. 정 소방교는 긴급 출동으로 감사장 전달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다. /양성운 기자